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의 『국가』에는 어둠에 잠식된 동굴을 배경으로, 그곳에는 한평생 동굴의 빈 벽만을 바라보도록 사지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다. 이 기묘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벽 위로 비치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림자들은 사물들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결코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재’라 믿는다. 여기서 내던져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한낱 ‘이미지’인 것은 아닌가?”하는 고전적인 물음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가상’일 뿐이라는 염려가 깃들어 있다. 이른바 ‘인식론적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의 영역에서 이미지 개념은 실재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그것은 결코 실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에 철학의 제1 과제는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고차원적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이 고스란히 계승되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죄수로 묘사되곤 하는데 사르트르와 들뢰즈가 말했듯이, 어쩌면 그들의 손과 발을 얽매고 있던 사슬과 수갑 또한 이미지에 관한 ‘굴절된 편견’ 아니었을까?

사르트르와 들뢰즈는 고전적인 철학의 소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플라톤이 조성한 무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르트르는 플라톤적 체계가 가지는 선입관을 비판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의식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의식은 곧바로 자신의 지향적 대상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체계에서는 이데아로부터 파생된 모사물과 그렇지 못한 허상을 구별하며, 이미지란 바로 부적격의 사본으로서 허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결코 사물적 존재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지금 너의 앞에 놓여있는 종이장과 상상을 통해 떠올린 종이장을 비교하라”고 언급하면서 지각과 상상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지각의 대상을 ‘즉자적 존재’로, 상상의 대상을 ‘대자적 존재’로 명명한다. 즉자적 존재와 달리 대자적 존재는 우리가 종이장을 상상하면 그제서야 나타난다. 의식의 자발성으로 인해 상상의 대상은 의식이 그것을 떠올리는 한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요컨대 사르트르에게 의식이란 외부세계에 실재하는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의식의 본질은 대상을 지향하는 작용인 것이다. 지향적 대상과 작용 사이에는 어떠한 매개도 요구되지 않는다. 사르트르에게 이미지는 인식과 대상 사이의 매개적 표상이 아닌 의식의 지향적 활동성으로 규정된다.

더 나아가 동굴 벽의 그림자들이 비실재적인 이유가 플라톤의 설명에서는 그 그림자들이 모방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라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비실재성은 의식의 의해 구성된 것이다. 지각이 실재와, 상상은 비실재와 관련한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플라톤에게서 이미지가 비실재성을 가지는 열등한 사물이었던 이유는 그가 상상적 대상을 지각적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네마』라는 저작에서 들뢰즈는 플라톤적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미지 개념을 거부하고, 이미지의 존재론적 위상을 새롭게 구축했다. 사르트르와 마찬가지로 들뢰즈의 이러한 ‘플라톤주의의 전복’은 모방에 대한 원본의 우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사물과 달리 허상적 이미지에는 더 이상 이데아, 즉 원형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플라톤적 방식에서 복사물의 복사물은 이데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다.

들뢰즈의 저서 『플라톤과 시뮬라크르』에서 그는 “각각의 동굴 뒤에는 열려져 있는 그리고 보다 깊은 다른 동굴이, 각각의 표면 아래에는 보다 넓고 낮설고 풍부한 지하 세계가, 그리고 모든 밑바닥, 모든 정초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언명함으로써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들뢰즈의 이러한 ‘무한히 증식하는 동굴 모델’에 의거한다면 『국가』에 등장하는 동굴은 그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지워지게 된다. 벽면에 어른거리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진 얇은 층을 통과하여 동굴 바깥으로 기어 나온다. 들뢰즈는 이 모델에 근거하여 영화 또한 더 이상 세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아간다.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 사물의 지위를 얻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러한 주장이 베르그손의 철학을 기초적인 토대로 하면서도 정작 베르그손의 철학에서 영화는 운동과 유사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죄수들은 일평생 벽에 비친 것들이 그림자인지 실재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
- ② 플라톤은 굴절된 편견에서 벗어나면 인식론적 불안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 ③ 사르트르가 보기에 『국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실재가 아니라고 인지했다라도 동굴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 ④ 사르트르는 플라톤 체계 속에서 지각과 상상의 본성상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고 보았다.
- ⑤ 들뢰즈는 실재와 허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기에 철학은 이제 이데아를 지향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26. 윗글의 사르트르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자적 존재는 의식 과정보다 앞서서 실재적으로 존재한다.
- ②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지 않으면 그 대상은 사라지게 된다.
- ③ 대자적 존재는 즉자적 존재와 달리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 ④ 비실재성은 지각의 대상뿐만 아니라 상상의 대상에서도 포착된다.
- ⑤ 지각과 상상은 의식의 작용뿐만 아니라 존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들뢰즈가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베르그손에 따르면 영화가 보여주는 스크린 위의 운동은 한낱 환영에 불과하다. 관객들은 초당 24프레임의 그림들이 차례로 슬라이드가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런데 공간 속의 위치들이나 시간 속의 여러 순간들만으로는 운동을 재구성할 수 없다. 제아무리 여러 순간들을 조밀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역동성도 가지지 않는 한낱 연속적이고 추상적인 시간일 뿐이다. 결국 인위적 수단은 반드시 인위적 결과를 창출하게 되는데 베르그손에 따르면 이러한 환영의 재생산은 결코 환영의 교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① 환영의 재생산은 특정 맥락에서 환영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② 수단이 인위적이라고 해서 결과도 인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③ 스크린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보다 영화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④ 공간 속의 위치 또는 시간 속의 여러 순간의 배열들이 동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
- ⑤ 영화가 보여주는 스크린이 정지된 그림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질 지라도 우리가 스크린으로부터 운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군.